



“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는 송암 스님은 “세상 만물은 아는만큼 보인다”며 세상의 본래면목에 눈을 뜨라고 강조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송암 스님 (경주 죽림정사 주지)

무슨 걱정을 사서 해? 내가 내 몸을 살피고 내 몸이 하지는 대로 해주고 살면 돼.
스님의 일상은 ‘가는 인연 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다’는 순리가 그대로 녹아 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된 개 ‘보리’와 ‘순둥이’가 그렇고 벌써 26년째 함께 살고 있는 거사님 한 분과의 인연도 그러하다. ‘이 생에서 나와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는 그 거사님은 20년 동안 머물렀던 대운산 내원암에서 인연이 됐다.
뇌성마비를 앓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24살의 청년은 이제 50살의 거사가 돼 죽림정사의 소소한 일들을 챙기고 있다.
그 거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 뇌성

긴 병풍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나 쓴 것처럼 자유분방하지만 전체는 조화를 이루며 글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는 병풍이다.
병풍에 닿았던 눈길을 돌려 가만히 스님의 방을 둘러보니 경봉 스님이 1977년 어느 이른 아침, 송암 스님을 위해 써 주었던 계승이 걸려 있고 스님이 눈길에 가장 닿기 쉬운 오른쪽 벽에는 경봉 스님의 사진이 높이 걸려 있다. 낮은 서탁 사이에는 경봉 스님 글씨를 모아 편찬한 책이 꽂혀 있다. 송암 스님이 마음 깊은 곳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풍경이다.
“우리 스님 모시고 있던 시절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우리 스님 법자가 죄송스

‘자연에 순응하며 내 몸에 내가 맞추는 것’ 건강비법
“세상 만물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입니다
집착 떨구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돼”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



송암 스님 방에서 바라보이는 앞산. 이 창을 열면 부처님 세계가 보인다...

10년 전 어느 날 송암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죽림정사 앞마당에 세 그루의 오동나무가 새싹을 틔웠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건너 산에 있는 오동나무의 씨가 날아와 마당기에 나란히 세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뽑아 버려야 한다고도 했지만 스님은 “저도 인연 따라 왔으니 그냥 두라”고 했다. 지금 죽림정사에 가면 한오리의 오동나무가 본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마당 한켠에 우뚝 서 있다.

“세 그루가 나더니 한 그루만 저렇게 남았어. 저 오동나무만 봐도 저마다 제 뿌리 제가 내리고 주위 환경과 어울려가며 스스로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저 나무는 십년 세월을 지내며 주위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지. 사람 사는 것도 다르지 않아.”
오동나무는 분명 10년 전 어린 묘목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지난 흔적을 모두 품어 현재의 모습만 우뚝하다.
송암 스님도 지나간 흔적을 좀체 드러내어 놓지 않으신다. 오로지 현재의 송암 스님만 있을 뿐이다. 오동나무보다 일 년 앞선 11년 전 죽림정사에 온 스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죽림정사에서 자연의 일부처럼 인연을 따라 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송암 스님의 일상은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다. 5일, 10일 한 달에 두 번 정날만 버스가 들어오는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불편함을 모른다. “나가면 모두 내 차인데 뭐가 걱정이야?” 스님의 말씀은 늘 이렇다. 차가 들어오지 않는 날엔 15분 정도 걸려 나가 차를 탄다.
세수 팔순을 넘긴 스님의 건강법은 “내 몸에 내가 맞추는 것”이다. 좋은 약을 먹는다면, 몸에 좋은 운동을 한다거나 부상을 떨지 않는다.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빨리 죽으려고도 말고 가만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마비를 앓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스님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라는 말을 들어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 제대로 걸음을 걸지 못해 온 마당의 흙이 패이고 한쪽 다리가 땅에 부딪쳐 신발이 그쪽만 찢어지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교정을 하면 나아지겠다는 한 생각이 일었다. 비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대나무로 다리를 고정시켜 놓기도 하고, 걷는 연습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발 700m가 넘는 대운산 산행을 따라나서더니 불편한 몸으로 기다시피 해서 산 정상에 오른 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생긴 거지. 상상조차 해 본적이 없는 산 정상에 올랐으니 스스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는 공부가 안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보살님이 있으면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허허허. 생각이 분명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인연을 소중히 여겨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스님의 일상은 우주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스님에겐 그저 인연을 대우했음을 뿐인 평범한 일상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크든 작든 찌그러졌던 모두 조화를 이루게 돼 있다”며 스님의 원연으로 놓인 병풍을 가리킨다. 스님의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글을 제자가 나무에 새

럽기도 해.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지금도 나는 공부 안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 하고 있노? 하시겠는데. 허허허”
스님이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는 방에 앉아 앞산을 향해 난 창을 열어놓고 산을 바라보는 일. 앞산을 향해 난 작은 창문 위에는 ‘향성(香聲)’이라는 힘이 넘치는 글씨가 나무에 새겨져 걸려 있다. 스님이 직접 쓴 글씨다.
스님이 앞산 풍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진리의 소리(香聲)가 여실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어. 그리고 고맙지 않은 게 없고, 그 심정 누가 아노?” 세상 만물의 본바탕을 보는 스님의 심안(心眼)을 누가 짐작하라?
“세상 만물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이야.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에 창을 열어놓고 있으면 저 산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를 것 같아. 세상 만물이 모두 고맙고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까?
“집착을 떨구면 그렇게 돼. 단 것 하지 말고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돼.”
결국 내가 세상이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싶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진면목에 눈을 뜨라. 송암 스님을 뵈고 돌아오는 길, 세상은 사라지고 나 홀로 우뚝했다. 죽림정사의 오동나무처럼.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토황토 배짚질기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제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 보장

제품구조설명

1. 원적외선세라믹보드
2. 황토세라믹 볼
3. 열선
4. 단열재
5. 온도과열방지장치
6. 전기축츠
7. 케이스
8. 용싸게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배전용짚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토 황토 배짚질기의 특징

1. 국내 최초 축열식 배전용짚질기
2. 직접 가열 축열식 충전시스템
3. 고 기능성 황토볼 사용
4. 원적외선 이중방사
5. 사용 시 유해전자파 무
6. 제품사용의 편리성
7. 저렴한 전기료
8. 인체 공학적인 설계
9. 전기안전된 제품 설계

축배게

배새끼 축항을 맡으며 꼭 주무십시오.

• 규격 : 가로 55cm × 세로 35cm

머리가 닿아지며 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 개운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 짓고, 활엽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큰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돼지 액자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축방석

천연 우리 축 100% 천연 황토로 짚 축방석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cm × 세로 50cm × 높이 5c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며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 30분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축항이 가득하여 실내의 온도가 제격됩니다.
-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큰마울 사람들

전날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박미숙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우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 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다마 3호-그림: 30×40cm
다마 4호-그림: 40×50cm
다마 6호-그림: 35×45cm
다마 8호-그림: 35×68cm
다마 10호-그림: 45×75cm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교방자

귀의 삼보 하우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다마 3호-그림: 30×40cm
다마 4호-그림: 40×50cm
다마 6호-그림: 35×45cm
다마 8호-그림: 35×68cm
다마 10호-그림: 45×75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